

## News

## 500만보 걸으면 10%, 추첨 뽑히면 13.2%... 연 10%대 고금리 적금 상품 잇단 출시

동아일보

은행과 저축은행, 연 10%대 고금리 주는 적금 상품 잇단 출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예대금리차 공시 등이 맞물린 결과  
광주은행, 최고 연 13.2% 금리 주는 '행운적금' 출시... 공격적으로 수신 금리 올리는 중

## 금감원, 은행권 외화유동성 점검... "달러 강세 장기화 대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은행권과 외화유동성 상황 점검... 주요 선진국 통화가치 하락과 같이 달러화 강세에 기인해 원화가치 하락한 것으로 의견  
참석자들, 보험사의 외화채권 활용해 외화유동성 공급 늘리도록 한 조치가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이라고 평가... 커미티드라인을 각 은행 사정에 맞게 선제적 확보 주문

## 금융권, 태풍 피해에 긴급생활자금 등 금융지원

아시아경제

금융권, 태풍 피해 입은 가게 대상 금융지원 나서... 농협, 피해 조합원 대상으로 무이자 생활자금을 세대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지원...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복구 소요자금, 긴급운영자금 지원하고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지원

## 애플페이 한국 상륙...12월 전국 편의점에서 쓴다

이데일리

현대카드, 애플과 국내에서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1년짜리 독점계약 체결... 늦어도 11월까지 단말기 개발하고 12월부터 상용화한다는 계획  
서비스에 필요한 NFC 단말기 제조 및 시스템 개발 작업 착수... 현대카드, 이번 애플페이 도입으로 기존 4위의 시장점유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여...

## '한남노 피해' 보험금 조기 지급된다...보험료 납입 유예

뉴스1

보험업계, 태풍 피해 고객이 보험금 청구시 심사와 지급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해 조기지급하기로 결정... 최장 6개월동안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대출금 신속 지급 계획  
전날 오후 3시까지 12개 손해보험사에 총 4,104대의 차량 피해 접수... 손해액 총 336억 4,200만원으로 추정

## 이르면 내년부터 동물병원 진찰·입원비 부가세 안 낸다

이데일리

이르면 내년부터 동물병원 진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정부, 병원별로 편차가 큰 동물병원 진료 항목 100개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2024년까지 마칠 계획  
진료 항목 표준화되면 펫보험도 활성화 가능...지역별 최저, 최고, 평균, 중간 비용 등을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KB증권, 하나은행 채권 500억원 판매 보류...“금리 변동성 커”

아시아투데이

KB증권, 하나은행이 월 이자 지급식 선순위 채권 발행하면 단독 판매 예정이었으나 금리 변동성을 이유로 유보... 예정일에 채권 발행하지 않아...  
업계에선 최근 은행채 금리 급등하자 발행사의 조달 비용 부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해석... 매월 이자 줘야 한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

## 증권형 토큰, 주식처럼 전자증권으로 포함...연내 가이드라인 발표

머니투데이

금융위원회,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제도화 방안 모색할 것... 증권 라이선스만 있으면 참여 가능토록 시장 활성화  
기존 IPO와 유사한 STO도 법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 기존 증권 인프라에 증권형토큰 트랙 신설하는 방식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